

# 네일, KS 출전 보인다

수술 한 달만에 불펜 피칭 소화  
본인도, 이범호 감독도 만족감  
'타이거즈 KS 불패' 잇기 속도



“우와 공 좋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이범호 감독의 갑탄사를 불렀다. 부상으로부터 돌아왔던 네일이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이범

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네일은 이날 총 40개의 공을 던지면서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잇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네일은 위력적인 스위퍼를 앞세워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1위 질주를 이끈 주인공이다. 올 시즌 26경기에 나온 네일은 149.1이닝을 소화하면서 2.53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 5패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시즌을 완주하지는 못했다.

네일은 지난 8월 24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데이비스의 타구에 얼굴을 맞으면서 턱관절 골절 부상을 입었다. 부상 다음날 턱관절 고정술을 받은 네일은 우려와 달리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을 잔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실내 운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단계를 올려가면서 훈련을 진행했고, 22일에는 불펜 피칭까지 소화했다.

오랜만에 진행된 불펜 피칭이지만 결과도 좋았다. 이범호 감독의 갑탄사를 부른 피칭, 공을 던진 네일도 “정말 좋았다”며 자신의 피칭에 만족감을 보였다.

네일은 “20개씩 2세트 40개의 공을 던졌다. 몸상태도 좋고 기분도 좋다. 모든 게 좋았다. 행복하다”고 불펜 피칭을 소화한 소감을 밝혔다.

네일이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한국시리즈 무대를 위해 속도를 내는 동안 이범호 감독은 가을 무대를



KIA 타이거즈 에이스 네일이 턱관절 고정술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불펜 피칭을 소화하며 한국시리즈 등판 기대감을 높였다.

〈KIA 타이거즈 제공〉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전날 나성범을 엔트리에서 제외했던 이범호 감독은 이날 최형우, 김선빈도 엔트리에서 뺐다. 소크라테스는 시즌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엔트리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부상 방지와 전력 점검을 위한 방안이다.

주축 베테랑을 제외하면서 혹시 모를 부상을 막고 전력 지키기에 나선 이범호 감독은 이들이 빠진 자리에서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 전력의 폭을 넓히

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온 내야수 윤도현이다.

김도영과 '입단동기'인 윤도현은 방망이 실력으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특급 유망주다.

하지만 잇단 부상에 시달렸던 윤도현은 올 시즌에도 복사근 부상에 이어 중수골 골절상을 입으면서 아직 1군에서 경기를 뛰지 못했다.

지난 21일 콜업이 된 윤도현은 22일 김도영과

'데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이를 연속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윤도현은 이날도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23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통해 시즌 첫 출격에 나서게 된다.

척추 피로 골절로 오래 자리를 비웠던 좌완 운영철도 17일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3이닝을 소화하며 '이상 무'를 일린 뒤 1군 선발 출격을 앞두고 있다.

5월 2일 경기 이후 모습을 감췄던 베테랑 고종욱

역시 22일 엔트리에 등록, 남은 경기에서 어필 무대를 갖는다.

이범호 감독은 “큰 경기에서 대타가 중요하다. 찬스 때 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그동안 발목이 안 좋아서 타이밍을 못 잡았다”며 고종욱의 콜업을 설명했다.

네일의 한국시리즈 출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막판 자리 경쟁이 전개되면서 KIA의 가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 타이거즈 'V12' 꼭 이루겠습니다

KIA, 25일 광주서 감사 이벤트  
한국시리즈 출정식 겸 팬 사인회  
'V11' 일군 김기태 전 감독 시구



KIA 타이거즈가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팬 감사 행사와 한국시리즈 출정식을 연다.

올 시즌 구단 역대 두 번째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을 작성한 KIA는 한 시즌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또 2017년 이후 7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축하하고 한국시리즈에서의 선전을 다지기 위해 'The show must go 1'을 주제로 팬 감사 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정해영, 김도영이 참가하는 팬 사인회로 시작한다.

경기 시작에 앞서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 전달식이 열린다.

KBO 허구연 총재가 최준영 대표이사,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 주장 나성범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다. 우승 트로피를 받은 선수단은 홈 관중 앞에서 정규시즌 우승 세리머니를 펼친다.

2017시즌 타이거즈 V11을 지휘했던 김기태 감독도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김기태 전 감독은 이날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를 맡는다.

선수단은 광주유니폼을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다.

광주유니폼은 올 시즌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광주 지역민과 KIA팬을 위해 기획했으며, 빨간색 상의 어깨에 호랑이 무늬를 넣어 구단의 정체성과 막강 전력을 표현했다.

또 광주시 지도에 호랑이 표정이 담긴 120만 관중 돌파 기념 패치도 수놓아졌다.

팬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했다. KIA는 입장 관중 전원에게 플래시 응원 스티



'광주유니폼'을 착용한 KIA 나성범(왼쪽)과 양현종.

〈KIA 타이거즈 제공〉

커를 선물하며 추첨을 통해 오토랜드광주에서 생산하는 기아 The 2024 스포티지 시그니처 그라비티 등급 차량 1대, LG전자 스탠바이미 GO 12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인크커피에서 제공하는 인크커피 10만원 상품권 120매, 인크커피 선물세트 100개, 아이엠티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티셔츠 120장도 경품으로 마련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한국시리즈 출정식이 펼쳐진다.

출정식을 통해 한국시리즈 엠블럼이 공개된다. 선수단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국시리즈 선전을 다짐한다.

또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이 'V12' 도전에 나서서 각오를 밝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경기 뛰고 싶은데...아쉬운 비

KIA 운영철·윤도현, 출격 미뤄져...삼성 3년만에 '가을무대'

기다렸던 운영철과 윤도현의 동반 출격이 하루 더 미뤄졌다.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16차전이 비로 미뤄졌다. 21일 비가 내리면서 하루를 기다렸던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은 결국 비로 성사되지 못했다.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속 광주에 비가 많이 내렸고, 이슬비가 이어지면서 경기 개시가 미뤄졌다. 그리고 비가 계속되면서 오후 3시 10분이 넘어 경기 취소가 결정됐다.

두 팀의 예비일이었던 22일에도 경기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 경기는 추후 편성된다.

이와 함께 팬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운영철의 복귀전과 윤도현의 시즌 첫 출격은 하루 더 연기됐다.

KIA는 23일 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시즌 15차전을 갖는다. 21일에 이어 22일 선발로 예고됐던 운영철은 로테이션 변화 없이 그대로 23일 등판한다. 삼성에서는 황동재가 선발로 나선다.

7월 13일 SSG전 이후 척추 피로골절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운영철은 재활을 끝내고 지난 17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3이닝을 던지면서 실전을 재개했다.

정교함을 가진 운영철이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KIA의 한국시리즈 마운드 구상 옵션이 넓어질 전망이다.

복사근 부상에 이어 중수골 골절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특급 유망주' 윤도현도 2위팀 삼성을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 17일 KIA의 우승이 확정되면서 1위 싸움은 끝났지만 광주에서 전개되는 이번 맞대결은 '기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삼성은 22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9-8 승리를 거두고 2위를 확정했다.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은 23-24일 '기싸움'을 펼친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10승 4패로 우위를 점한 KIA와 앞선 홈 2연전 맞대결에서 통탄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우승 싸움에서 밀린 삼성은 1-2위를 확정하고, 정규시즌 마지막 2연전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52홈런-53도루' 오타니 '55-55' 가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5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도루 1개를 추가했다.

오타니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도루는 마지막 회에 나왔다.

9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오타니는 중전 안타를 친 뒤 2루를 홈쳤다.

4경기 연속 도루에 성공한 오타니는 시즌 도루를 53개로 늘렸다.

홈런은 추가하지 못해 오타니는 팀이 7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52홈런-53도루를 기록 중이다.

다저스는 콜로라도에 3-6으로 패했다.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는 이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벌인 방문 경기에서 시즌 54호 홈런을 작

렐했다.

저지는 7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브랜던 비엘락의 초구 슬라이더를 공략해 중앙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16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이후

옛세 만이자 5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다.

저지는 아메리칸리그, 오타니는 내셔널리그 홈런 1위를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MLB 전체 홈런 1위'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양키스는 오클랜드를 10-0으로 완파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